

충효로 근본을 삼고 경학으로
업을 삼아 욕된 관작과 영달을
구하지 말라.

閑窓公 遺戒



일가 여러분 그 동안 安寧
하셨습니까?

지난 여름은 참으로 무덥고 태풍에다 홍수마저 심하여 견디기 어려운 季節이었습니다. 한 시련이 가고 清涼한 菊秋의 시절도 흘러 또 한 해를 접어야 하는 仲冬의 절기가 되었습니다. 氣候뿐만이 아니라 社會환경도 激動 그 자체인 요동속에서 일가분들 모두 굳건히 意志의 삶을 일구어 또 한 의미의 結實이 거두어 졌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99년 봄 여러분들의 간곡 하신 성원으로 다시 大宗會長 직을 맡게 되면서 그 무거운 책임을 어떻게 다 할까 하고 염려가 앞섰습니다. 분발하여 누구에 채찍하며 精誠을 다

坡州廉氏宗報

精誠과 힘을 다하여

한다는 一念만으로 勞心만 하다가 신통한 결과없이 또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꼭 成就하고 싶었던 일은 '99년 봄 總會 때 發議되었던 江華 祀壇의 補修工事였습니다.

일가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1987년 丁卯 11月에 江華哲宗外家 옆에다 忠敬公의 神道碑를 建立하고 忠敬公을 비롯한 菊坡公, 東亭公, 清江公 네 분의 祀壇을 세운 후, 每年 2回의 訂초와 祭享을 올리며 힘이 났는대로의 管理를 해왔음에도 壇域에는 雜草가 무성해서 訂초때 마다 힘이 들었고 또 주변에도 정리할 일이 많아 補修工事が 긴요했던 것입니다. 工事を 한다고 發議는 하고도 판단하기 어려웠던 것은 어떤 規模로 하며 그豫算은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가 하고 주저 했습니다. 總會 후 올 봄 5월 2일 江華享祀 때 여러 任員분들께 생각했던 구상을 개진하였더니 參席하셨던

분들께서 工事의 우선은 壇域의 잔디를 保全하는 것이니 한 번 除草劑를 본격적으로 살포해 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러한 助言에 수긍되는바 있어 금년 5월 8일과 6월 18일 2회에 걸쳐 除草劑를 살포했으나 새로 다른 풀이 우거져서 기대했던 結果에는 못 미쳤습니다. 이를 참고 삼아立案했던 보수공사를 조금씩이라도 확실히 추진하려 합니다. 다행히도 지방문화재로 된 哲宗外家 건물은 蘭落된 곳이 많아 江華郡廳에 보수를 건의한 보람이 있어 '99년 말까지 국비와 지방비 각 4320만원씩 총 8640만원의 경비로 기와, 마루, 문짝, 벽 등 일체 보수공사를 금년중 착수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호응해서 門中에서도 약 2,600만원의 예산으로 壇域과 神道碑域의 일대 補修工事を 할 예정이오니 門中 여러분께서도 많은 성원과 지도를 바

라마지 않습니다. 나라 살림이 어려울 때라 그 파장이 일 반가정에도 심각히 영향되고 있는 요즘, 가능한 일가분들에게는 大宗會를 위한 誠金에는 이제 수년간의 휴식년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가져왔던 心情이라 또 성금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가슴 아픈 일이나 더 이상 방치하거나 미룰 수 없는 정황이니 깊이 고려하시어 힘이 되어 주십시오. 또 各地域宗親會의 상황을概觀하면 昨年부터 시작한 寶城의 齋室 건립을 年末이나 되어야 一次공사가 마무리 될 것 같고 수년을 두고 念願했던 忠敬書院의 마무리 공사는 羅州文忠에서 분발하여 내년 봄에는 完了한다는 목표로 추진중이라니 순조로히 마무리 되기를 기원하며, 永川宰相公 산소 묘역의 정화와 추가 공사도 속히立案되어 착수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밖에도 서울 종친회를 비

發行人 廉珪澤
編輯人 廉宗權
編輯委員 仁洙, 東右, 秀東, 弘周, 敏燮
南燮, 基培
發行處 (坡州廉氏大宗會)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64 희산빌딩 403호
전화 323-6223 아간 924-1020
印 刷 所 현대종합문화사

會長 廉 珍 泽

롯하여 아직 모임으로서의 틀이 잡히지 못한 지역(인천, 청주, 춘천 등)에도 지역종친회로의 구성이 하루 속히 이루워지기를 일가분들 모두 관심을 가지고 조언해 주십시오.

한 핏줄을 인연으로 삼아서 뜻모아 기왕 시작하고 다행이 좋은 모임 "坡州廉氏大宗會" 와 산하 "각 지역 종친회"를 위해 일가분들 한 분 한 분이 스스로 중심이 되어 창가에서 花草를 가꾸듯 마음의 정성을 가지시고 무엇인가 성의의 흔적을 심어놓아 후손들에게 자랑으로 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건투와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실 것을 기원합니다.

己卯 仲冬에

大宗會 소식

1. '99년 任員會 개최

'99년 3월 6일 11:00~13:40간 大宗會 사무실에서 '99년의 임원회를 개최하였다. 임원 28명이 참석하여 會務제사항을 검토하고 大宗會기금의 예치금융기관의 재검토와 선정을 개진한바 현행대로 會長이 결정할 것으로 합의하고 예치금의 金利가 하락하여 기금의 利子수익금 만으로는 大宗會의 경상비를 충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니 '99년 새로 선출되는 任員들에게 일정금의 會費를 납부케 하여 경상비의 일부로 지출하자는 案을 상정하였으나 참석한 任員분들이 즉석에서 성금을 하여 (500만원) 예산에 計上하였다. 또한 '99년 총회는 4.10에 할 것과 총회에 참석하는 代議員의 數를 지역별로 배정하였고 (60명) 강회 壇享은 5.2로 정하고 강화사단에 대한 전면 재보수 안을 상정(총보수비 26,128,000원)하여 합의된件

을 총회에 상정키로 하였다.

2. 宗報 간행

1998. 11. 6宗報 11호 2,000부를 발간하여 각 지역 종친회와 나주, 영천의 향사때 일괄 배포하고 大宗會 전 任員 및 개인들에게 우송하였다. (12호 발간을 위해 각 지역에서는 원고주실 것과 각종 자료 및 광고협찬 있으시기를 부탁합니다.)

3. '99년 총회 개최

'99년 4. 10. 11:15~13:10간 大宗會 사무실에서 31명이 참석 총회를 개최하여

가. '98년도 會計결산안을 심의하여 승인(10,034,970원)하였고 '99년 豫算 12,930,179원을 토의 후 확정하였다.

나. 강화사단에 대한 전면 보수공사 안을 상정하여(공사비 26,128,000원) 안건을 확정 승인하였다.

다. 정관에 의해 任期가 滿了되는 全任員을 선출하기 위하여 종전까지의 관례대로

합의에 따라 전형위원 9명이 별정 장소(3층 사무실)에서 새 임원을 선정하여 전형위원장이 된 廷薰氏에 의해 총회에 발표하고 총회 전원이 합의해 任員 61명이 선출되었다.

기타 소식

1. 99. 6. 4~6. 7간 경기 부천시립중앙도서관 서예교실(대표 廉宅相)에서는 시문예 전시관에서 서예작품전이 있어 주변 일가분들이 참관하였다.

2. 99. 6. 19. 20.00 KBS 1TV에서는 역사스페셜 (21세기 접시꽃 당신 - 고려부인 염경애)에서는 고려 인종때인 1146년에 47세의 나이로 남편 崔婁伯과 6남매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난 廉瓊愛에 관한 방송이 있었다.

3. 강화 철종 外家 보수 강화군청에서는 국비 4,320만원, 지방비 4,320만원 계 8,440만원의 예산으로 1999년

말까지 강화 철종외가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공사(기와, 마루, 벽, 문짝 등)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4. 조선일보 3월 2일 기사에 "연봉 100억 받았어요" 제하로 인터넷 정보서비스 업체인 야후코리아(본사 미국) 사장 廉振燮(46세)은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97년부터 야후코리아 사장으로 발탁되어 기량이 인정되어 미국 야후의 스톡옵션을 받음으로서 앞으로 3년간 매달 10억원씩을 받게 될 것이나 이 돈은 사사롭게 쓰지 않고 밝은 사회를 만드는데 쓰겠다고 했다.

5. 조선일보 3. 12일 11면 "세계로 뛴다"란에 일본에서 "정보노하우 팔아 月 매출 15~20억" 제하로 노엘정보테크 廉宗淳(37세) 사장은 기업 경영정보시스템 개발 및 컨설팅 비즈니스가 주무업으로 대일본과의 교역으로 38명 직원의 중소기업으로 월매출 15~20억을 매출한다고 한다.

大宗會 任員

(1999. 4. 10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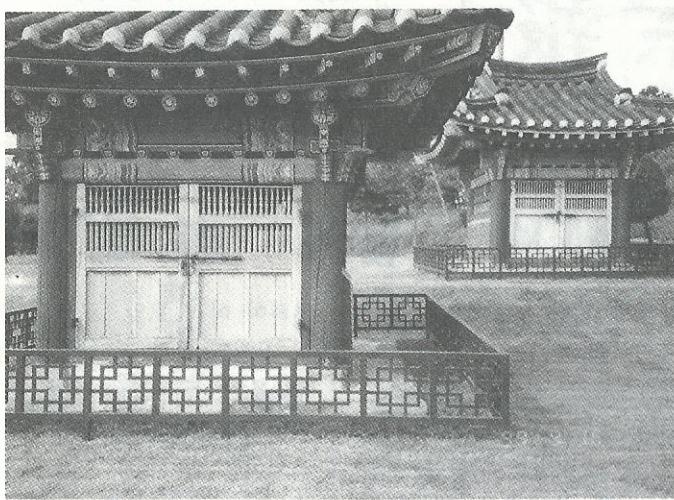
顧 問 仁洙, 庚桓, 在熙, 昌勳, 在均, 鍾建, 琦燮, 東翼, 基奉, 普鉉

諮詢 東玉, 永錫, 延薰, 凤哲, 吉燮, 昌鎮, 聖壽, 東石, 圭三, 宅相, 澤根

會長 珪澤
副會長 吉榮, 相顯, 泰模, 炳斗, 東浩, 時均, 德洙, 洪燮, 錦燮, 東鎮, 宇權, 洪太, 在均, 弘周, 敏燮
(都有司兼)
宗桓(常任理事兼)

命秀, 相守, 秀東, 在郁, 權翊, 喆浩, 東根, 東元, 圭正, 學光, 車澤, 圭顯, 東輝, 南燮, 京根, 正水, 燉鎬, 秀一, 尚述, 鍾洙, 文圭, 英哲, 相天, 基瑢, 賢植

監事事



최루백의 비각

고려사 列傳에 보면 孝友에 16件, 그리고 烈女편에 12件를 세워 각각 그 업적을 친양하고 있다. 孝行과 節義에 對한 評價는 오랜 歲月이 지난 요즘에 와서도 기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價值性이 매우肯定的이다. 고려사에서도 前提했듯이 父母에 孝誠을 다하고 弟兄間에 友愛하는 것은 사람의 恒性이라 했는데 지금에도 수긍되는 말이다. 또 목숨을 아끼지 않고 女人으로서

그 貞操를 지킨일이 어찌 옛날만의 가치관이겠는가. 貞操는 곧 節義인데 어찌 男女의 區分이 없는 人間으로서의 道德律이 아니겠는가. 고려시대의 옛부터 이조에 이르는 歷史 속에서 夫君이외의 男子에 의한 침해에 대해서는 죽음으로 節義를 지켰다는 類型의 烈女로 칭송된 기록은 자주 있으나 節義만이 아니고 現代의 인 시각으로도 높히 評價될 수 있는 女人相으로 소개된

기록은 쉽게 볼 수 없다.

다행히도 '99년 6월 19일 20시부터 약 1시간동안 요사이 그 시청율이 높아진 KB.S 1TV의 "역사 스페셜"에서 "12세기의 접시꽃 당신 ~고려부인 염경애" 제하로 방영된 우리 廉門의 上系 謚德方 선조님의 따님으로 漢南 崔婁伯에게 시집간 廉瓊愛 할머니에 關한 프로가 있었다.(작가 정윤정, P.D 오수성, 해설 유인촌) 우연히라도 廉字 성씨만 만나면 그리 반가울 수가 없는데 공영T.V 인기프로에서 지금으로부터 853년전인 고려때의 우리 家門의 할머니에 關한 방송을 구상한다는 작가의 連絡을 받고 반가워서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게 되었다니 한 달전부터 내용을 아는 坡州廉門의 사람을 찾았으나 연락이 되기까지는 힘이 들었다며 방송예정일이促迫해서 보다 자세한 자문을 이쪽 얻지못해 아쉽다고

다.

오래전(19세기초로 예상) 開城에서 發見되어 당시의 이 왕가 박물관을 거쳐 지금은 國立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는 두 선조 할머니의 墓誌石의 內容文은 1986년 發行된 坡州廉氏 丙寅大同譜 文獻錄에 등재되어 있어 일가분들께서는 그 內容을 아시고 계실 것으로 믿으나 이 기회에 한 번 다시 그 墓誌文을 읽어 보기로 하자. 丙寅大同譜 文獻錄에 보면 宜寧郡夫人 沈氏의 墓誌文은 原文과 그 번역된 내용이 게재되어 있으나(26쪽) 염경애 墓誌文은 原文만 있고 번역문은 없다.(27쪽)

자세한 內容은 번역문 등을 꼭 한 번 읽어보실 것을 권하며 혹시 大同譜를 못 가지신 일가분을 위해 沈氏 할머니의 墓誌文의 大略을 적어보면, 夫人은 樞密院 右承宣 紿事 謚候의 따님으로 17세때 廉德方에게 시집와 4男2女를 낳았다. 長男은 純若(順州郡守)이 가 사냥갔다가 범에 물려갔다. 이때 루백은 15세였는데 모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갚는다고 도끼를 들고 범의 뒤를 밟아가니 범은 벌써 배불리 먹고 바위에 누워있었다. 루백은 다가가서 범을 꾸짖으니 범이 꼬리를 가지고 주저하는 것을 보며 도끼로 내리쳐 범을 죽여 고기는 항아리에 담았다가 먹어치우고, 범의 배를 갈라 부친의 시신을 모아서 弘法山 서쪽에 장사지내고 시묘하였다 어느 날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 "개암나무 헤치고 孝子묘려 다다르니 자식 정감이 하도 많아 기쁜 눈물 끝없네. 날마다 흙 젓다 무덤을 꾸리니 그 정성 밝은 달, 청풍만 알뿐이리 생전에 봉양하고 사후엔 묘 지키니 뉘라서 그 孝誠 시종이 없다 안하리"라는 詩를 남기고 사라졌다. 그 후 루백은 及第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한림학사 등 벼슬을 하였다.(고려사 권 121, 별전 34, 孝友편)

1999년 예산안

수입지부

(단위: 원)

항 목	1998년 예산	1999년 예산안
이월금	2,215,149	3,230,179
기금이자수익	8,300,000	3,200,000
종보간행성금	1,000,000	1,000,000
종보광고수익	500,000	500,000
현성금	500,000	5,000,000
계	12,015,149	12,930,179

전년비 + 915,030

* '99년 3월 6일 임원회시 경상비 충당을 위해 현성해 주신 분

珪澤 100만원, 在熙, 昌勳 각 50만원

在均, 東靄, 泰模, 鍾建, 錦燮 각 30만원

吉榮, 相顯 각 20만원

洪太, 尚述, 東輝, 賢植, 松波회, 弘周, 秀一

在郁, 喆浩, 東玉, 敏燮 각 10만원 계 500만원

지출지부

(단위: 원)

항 목	1998년 예산	1999년 예산안
전화요금	400,000	500,000
사무비	500,000	600,000
출장비	500,000	600,000
회의비	1,500,000	1,700,000
향축대	1,300,000	1,500,000
종보간행	1,800,000	2,000,000
경조비	1,000,000	1,000,000
거마비	3,600,000	3,600,000
사무실관리	500,000	500,000
세금	200,000	400,000
잡비	300,000	300,000
예비비	415,149	230,179
계	12,015,149	12,930,179
		+915,030

했다. 수일후 大宗會사무실에서 담당P.D와 촬영진 여러분과 상면하는 자리에서 筆者는 우리 門中의 소개와 요구되는 자료를 보이면서 염경애할머니의 생애는 墓誌文內容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려시대 뿐만 아니라 요즘의 世態에서 보더라도 가장 모범된 女人相으로 높히 評價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母親되시는 宜寧郡夫人 沈氏의 墓誌文과 그 번역된 내용을 제시하면서 염경애할머니의 빛나는 생애의 근원에는 母親沈氏의 모범된 삶과 엄격한 교육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며 이 두 분의 모범된 생애는 고려 당대는 물론 現代의 시각으로도 女人相의 龜鑑이니 방송에서도 이 점이 강조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는데 실지 방송은 “접시꽃 당신”이란 제목대로 夫君崔婁伯과의 간절한 부부애를 초점으로 조명된 점, 조금은 허전한 아쉬움은 있었지만 조상분의 빛나는 행적이 방송되었으니 후손으로서의 긍지를 느꼈다는 선에서 만족해야 했다.

이만치라도 선조 할머님에 관한 행적이 세상에 널리 재조명하게 된 것은 우연히도 墓誌가 發見되면서 시작되었

고 二男은 行若(大學生)인데 大夫人 보다 먼저 死亡하였고 三男은 忠若(平州郡守)이고 四男은 信若(당시 監察御史, 後에 政堂文學 禮部尙書)이다. 一女 瓊愛는 禮部侍郎 崔婁伯에게 出嫁하고 二女 貞愛는 主簿 李自得에게 出嫁하였는데 둘 다 大夫人보다 먼저 死亡하였다. 大夫人은 天性이 聰明하고 지혜로우며 勤儉하며 家業을 꾸려나갔다. 65세 때에 肅夫하고도 婦事를 해태하지 않았고 子女를 教育시켜 모두 才質이 뛰어났으며 賢淑하였음으로 칭송이 자자하여 그 聖善을 하늘이 도우사 1162년 12월 15일에 卒하였다. 그 달 23일에 夫君 옆에 禮葬하니 그 銘에 “婦行을 備修하고 母儀가 克茂하였도다. 勤儉으로 起家하고 慈仁하여 亨壽하였도다. 誌石에 새기노니 꽂다운 이름 不朽하라라.” 다음 廉瓊愛 할머님의 墓誌文의 번역문을 쓰니 참고하시고 大同譜에 정서해서 첨가해 두면 참고가 될 것이다.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夫君되시는 崔婁伯에 관해 略述해 둔다. 漢南 崔婁伯은 지금의 水原 崔氏의 中興祖로서 고려사 孝行편에 기록하기를 루백은 水原衙前 상지의 아들로 상지

이상의 기록에서와 같이 극진한 孝子였기에 及第하여 벼슬길이 순탄하고 더욱 宰相家の 名門의 따님을 맞아 가정을 모범되게 일구어 자식들 훌륭히 키워 夫婦愛 또한 극진하였으니 가히 자랑스런 家史라 할 것이다. (宗桓)

痕迹없는 善行

어느때 大邱 東村에 계시는 일가분의 病院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對話中 무심코 壁面을 보니 “應無所住 行於布施”라고 쓰인 액자가 걸려 있었다. 평소 이 분과의 접촉에서 느껴지는 인상으로는 “의사”라기 보다는 法官의 기질로 보았었다. 대체로 法官을 포함해서 自然科學을 전공한 분들은 知的인 思考가 日常生活에서도 강조되어 情의인 面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속되게 表現하면 불임성을 못 느끼고 고지식한 외골수의 성격으로 못박은 셈이다. 그런데 그 벽에 걸린 글귀를 보고 나는 잠깐동안 여러 생각을 멈추었다. 글귀의 내용이 내가 그 분에게 느꼈던 고정관념과는 次元이 다르기 때 (다음면으로)

(전면에 이어)

문이었다. 이 글은 金剛經에 있는 내용이다. 직역하면 “마땅히 머무는 곳 없이 남을 도우라”는 뜻이다.

無住라면 모든 感覺器官에 흔적을 남기지 말라는 뜻이고 布施란 여러 가지 方法(財施, 法施, 無畏施 등이 있다)으로 남을 도우라는 의미이다. 정리하면 자신의 물심양면의 힘을 아끼지 않고 남을 위해 돋 되 도운 흔적을 아무 것으로도 남기지 말라는 것으로서도 왔다는 생각의 흔적이 마음 속에도 남기지 않는 것이 眞正으로 남을 돋는 방법이라는 내용이다.

기록교 성경의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義를 行치 않도록 注意하라 — 너는 救濟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左손이 모르게 하여 네 救濟함이 隱密하게 하라는 句節이 있다. 비록 표현방법은 다르지만 傳하려고 하는 뜻의 本源은 같다고 생각된다.

이 구절들은 나도 座右銘으로 하는 金言의 하나인 바, 善行의 根本은 이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한 글귀를 정적으로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저 일가분이 저 글을 선호하고 또 실천하기 위해 銘으로 벽에 걸어 놓았다는 일가분의 心情을 헤아릴 때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아무도 없는 골목길에서 휴지를 주어 담고 가는 노인, 또 일평생을 고생하며 모은 재산을 아낌없이 이름을 감추고 헌납하는 노부인의記事를 보고 한편으로는 연말이나 어울려 양로원에 가서 선물을 주고는 사진을 찍고 보도까지 되는 풍경, 자신의 돈으로 자신을 효자라며 마을앞에 효자비석을 세운 풍경을 보았을 때 얼마나 善行을 하고 싶었으면, 얼마나 孝子가 되고 싶었으면 저렇게라도 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에 차라리 눈물이 난다.

무엇인가를 했다며 마을에

귀에 또는 학교교정에 세워진 碑石을 보면 설사 해당 본인이 한 일이 아니라도 비단은 본인에게 씌워지는 것이다. 이 哲理는 꼭 알아두어야 한다. 공부를 해야 성적이 좋아 진다는 것은 모든 學生이 다 안다.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는 學生은 적다. 실천 못하면 이는 것이 아니다. 무엇인가를 위해 돈을 냈다고 비석이 세워졌다면 자랑되기보다 끝내는 부끄러운 일이 된다는 것이 하늘의 뜻이고 人心의 行路이다.

자신의 명예나 榮達을 爲해서가 아니고 門中 先祖분들의 영광된 흔적을 남겨 後세에게 生活의 참 뜻을 가르치는 指標로 하겠다며 자신들이 獻誠도 하고 수고까지 하면서 유적을 정화하고도 비석에는勿論 그 흔적을 지우고 계신 일가분들께 宗人們은 그 德行과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碧江)

祖上을 辱되게 말자

坡州廉氏의 일가분들은 대체 말하기를 우리 先祖분들은 高麗朝를 섬겨왔기에 李朝에서는 벼슬길에 나서지 않았다

라고 하며 節義心을 자랑하고 있다. 李朝에 와서도 李朝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杜門洞으로 숨어버린 고려말의 선비들의 貞節을 李朝의 歷史家들도 높이 評價했었다. 우리 문중에서도 李朝初期에서는 李朝를 섬기는 것을 기피한 흔적을 族譜나 文獻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조 초기에 아무도 벼슬길에 오른 사람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또 우리 일가분들의 常識으로는 李朝에 와서 文科及第하신 坡州廉氏는 清江公의 十代孫인 友赫(仁祖丁卯試에 及第司憲府 掌今 - 正四品 - 에 이름) 한 분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 族譜를 자세히 보면 놀라게 된다. 李朝末(韓末)은 論外로 하더라도 너무도

많은 분들이 벼슬길에 오른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기록들이 사실이라면 우리 先祖분들은 李朝에 와서는 벼슬길에 들지 않았다는 常識이 거짓이 된다. 사실을 確認하기가 어렵다.

추측해 본다면 후손의 어느 한 분이 높은 벼슬길에 올라 당시의 制度에 따라서 追贈(追贈) 했을 예도 있었을 것이고 잘못 생각해서 근거없이 조상님의 기록에는 높은 벼슬 이름을 남기는 것이 孝道의 일면이라고 판단하여 修譜할 때에 억지로 벼슬이름을 조상분의 譚 밑에 기록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또 한 예는 비록 李朝에서 벼슬은 안해도 나라가 外侵을 당하여 國運이 위태로울 때(壬辰倭亂, 丙子胡亂 등) 합심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운 功으로 관직을 받고 하면서 조상까지(대체 조부까지)

— 開城 廉瓊愛 墓誌 —

皇統 6年(고려인종 24년 서기 1146년) 丙寅正月 28日 戊戌에 漢南 崔婁伯의 妻인 峯城縣君(5~6品正妻에게는 縣君이라 봉했다)廉氏가 마을집에서 세상을 떠났다. 順天院에다 빈소를 마련 했다가 2월 壬寅에 京城(당시의 서울 지금의 開城) 북쪽 朴穴의 西北편 산동성이에서 火葬하였다. 遺骨은 함봉하여 임시로 開城 동쪽의 清涼寺에 모셨다가 3년만인 戊辰年(서기 1148년) 8월 17일에 因孝院 東北岡에 있는 돌아가신 친정아버님(서기 1147년에 돌아가신 廉德方) 무덤 바로 옆에다 장사지냈고 부군인 崔婁伯은 다음과 같이 墓誌를 짓노라. 아내의 이름은 瓊愛였으니 檢校 尚書(6부 尚書의 正三品) 右僕射(百官을 總括하던 尚書 都直의 正三品) 大府少卿(財貸를 보관하던 內府寺의 從4品) 벼슬을 한廉德方公의 딸이고 母는 宣寧郡夫人 沈氏였다. 아내는 25歲때에 시집와서 여섯 남매를 낳았는데 첫째는 端仁, 둘째는 端義, 셋째는 端禮인데 모두 학문에 뜻을 두었고 넷째는 端智로 출가하여 僧이 되었다. 첫째 딸은 “貴姜”으로 興威衛 錄事(西班牙 - 武官 벼슬 正8品)崔國輔에게 시집갔다가 崔氏가 죽자 집에 돌아와 있으며 둘째 딸은 “順姜”으로 아직 나이가 어리다.

아내는 玲瓏하고 조심스럽고 정숙했으며, 자못 글을 알아 大義에 밝았으며 말씨와 용모, 일 솜씨와 행동이 여러 사람보다 뛰어났다. 시집오기 前에는 훌륭히 父母를 섬겼고 시집와서는 婦道에 부지런히 힘써서 어른의 뜻을 먼저 알고 그 하고저 하는 뜻을 이어 받으면서 내 돌아가신 어머님을 孝誠껏 봉양하였고 안팎 친척분들의 吉凶 경조사에 임해도 그 정겨운 마음을 함께 함으로서 그 처신이 훌륭하다고 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일찍이 내가 貝州(전라도 보성)와 中原(충청도 충주)의 원으로 나갔을 때 산 넘고 물 건너 千里의 머나먼 길도 함께 했고 혹은 軍事에 종사하는 동안은 가난하고 외로운 규방을 지키면서 여러 차례 出征 때에는 軍服을 지어 보내주었고 혹은 內侍에 참여하는 동안 어려운 살림에도 음식 등을 보내와 모두가 함께 먹을 수 있게 하였으니 나를 쫓아 親難을 겪은 23년 동안의 고생스럽고 정성을 다해준 일 어찌 다 적을 수가 있겠는가.

나의 先考를 섬길 기회를 갖지 못한 아내는 每年的 歲祀와 伏日 및 月臘日에는 매번 제사를 정성으로 드렸으며 또 일찍부터 스스로 길쌈을 하여 이것을 모아서 제사 때마다 매번 옷을

지어 神位전에 바치었으며 또 佛典 齋에 나갈 때는 적든 많은 “버선”을 만들어 승려들에게 施與하곤 하였는데 이것이 가장 잊을 수 없는 일이다.

일찍부터 평소에 나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글공부만을 전념 하시어 다른 일에는 심려치 마세요. 저는 집안에서 가족의 의복과 양식을 주관하나 비록 반복하여 힘써서 충족시키려 해도 뜻과 같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설사 뒷날 제가 불행하게도 목숨을 거두게 되고 당신은 후한 祿俸을 받아 모든 일이 뜻대로 되고 家計가 넉넉히 되더라도 제가 생전 재주가 없었다고 하지 마시고 가난한 생활을 꾸려갔던 일을 잊지 말아주세요”라고 하였는데 말끝마다 크게 탄식을 하였었다. 乙丑년(1145년) 봄에는 司直(正7品)으로부터 右正言(從6品) 知制誥로 자리를 옮겼는데 아내는 얼굴에 기쁜 빛을 띠면서 말하기를 “우리의 가난이 가시려나 봅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諫官(잘못된 點을 간하는 자리)은 녹봉이나 지키는 자리가 아니요”라고 하니 아내는 말하기를 “문득 어떤 날 당신이 궁전에서 임금님 앞에서도 잘못된 일에 諫言을 떳떳히 하게 된다면 저는 비록 가시나무 비녀를 꽂고 무명치마에 삼태기를 이고 일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도 달게 여길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여하간의 부녀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그 해 9월에 아내는 병이 들었고 이듬해인 丙寅 정월에 이르러 위독하게 되어 세상을 떠나니 한이 어떠했겠는가. 나는 이해(丙寅년) 여름에 右司諫으로 옮겼고 그 해 겨울에는 左司諫으로 옮겼으며 丁卯년 봄에는 侍御史(從5品)로 승진했으나 그 해 겨울에는 禮部員外郎(正6品)으로 좌천되었다가 戊辰년 봄에는 다시 禮部郎中(正5品)으로 옮았고 이어 清州副使를 제수받는 등 여러 번 벼슬을 옮기며 계속하여 후한 녹봉을 받게 되었는데도 집안살림을 돌이켜보면 衣食이 오히려 아내가 어렵게 애써 구하며 살던 그때만 못하니 누구라서 아내를 재주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내가 운명하려 할 때 나와 자식들에게 遺囑을 남겼는데 모두가 다 이치에 닿아 마음을 울렸다.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47세였다. 다음과 같이 銘하노라 거듭 믿음으로써 맹서하노니 그대를 감히 잊지 못하리니 함께 같이 무덤에 묻히지 못하는 일 매우 애통하며 아들딸들이 나는는 기러기때 같이 건재하니 모두 富貴가 세세로 창성 할 것이라.

追贈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의아스러운 것은 配位에 있어 특히 李朝에 와서 세 분 네 분의 配位에 夫君의 관직에 따른 外命部의 品階(貞夫人, 淑人 등)가 기록될 수 있었을까 의심이 된다. 內外官職의位가 상의한 것도 있으니 진위가 더욱 의심스럽다. 最近의 우리 族譜를 보고 李朝에서 嘉善大夫(從二品) 벼슬을 한 선조분이 이렇게 많았는가 하고 놀랐다. 심한 것은 春秋館事(領議政이 兼한 자리)도 있고 五衛都摠府의 副摠官(從二品)位도 있었다.

하나 族譜를 자세히 보면 前後사정의 언급도 없고 아무 근거없이 中間의 사람이 追贈되는 경우도 있었다. 内容은 現識에 있었던 기록이었으나 品階만 표시되고 職名은 없는 예도 있다. 이 혼동스러운 内容을 보고 있으면 몇 번이고 중도에서 책을 덮어 버리고는 한다. 최소한도 나는 앞으로 우리 문중의 자랑의 修飾으로 不事二君이니 節義란 용어는 가능한 쓰거나 말을 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碧江)

옆면 “염경애 묘지문”은 1986. 발행 대동보 문현록 27면의 번역문이니 발췌하셔서 첨부하세요.

뿌리공원의 조각물

자신들의 뿌리를 알게 하고 自然 속에서 心身을 수련하면서 忠孝정신과 주인의식 함양의 산 교육장을 造成한다는 뜻으로 1996년 3월부터 大田市 중구청 주관으로 중구 침산동산 34번지 일원 6만2천평에 “뿌리공원”的 건설이 시작되었다.

여러 家門의 내력이 기록된 조각품이 세워지면서 다수 市民들이 다녀와 홍보가 되자 유독 우리 廉門에서만 참여치 못했던 터라 소외되는 마음과 열등감 마지 가지게 된다는 생각들이 모여져 1998년 6월에 坡州廉氏 한밭침목회(회장 20世 廉泰大)에서 우리도 이에 참여하여 조각품을 세우자는 결의를 하고 여러 번의 모임을 거친 후 조각품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위원장 廉文圭)가 구성되고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소요자금 마련과 조각품의 구조와 그 규모, 내용문의 작성 등 어려운 문제들이 부각되었다. 먼저 대전거주 일가분을 대상으로 필요경비의 현성모금에 주력하면서 坡州廉氏 대전 종

친회와 大宗會에도 보고하여 승인을 얻으며 지도와 자문을 구하기로 하였다. 일가분들의 성원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마련되자 조각품의 구상과 조각은 전문조각가인 김희상氏께 의뢰키로 하였고 내용문장 작성에서 일가분들의 자문을 염어 내용문을 작성했었으나 일가분들 중에 相異된 意見이 있어 결정하기 어려웠다. 여러 일가분들이肯定하는 방향으로 成文하여 글씨는 서예가인 22世孫 廉浩澤氏가 쓰고 총경비 약2,000만원으로 조각품은 가로 1.7m × 세로 3.7m의 오석으로 제작이 되어 姓氏中 70번째로 '99년 5월 29일에 이를 뿌리공원내에 세웠다. 그 동안 현성해주신 일가분을 비롯하여 도와주신 분들께 다시 감사의 말씀드리며 부족한 식견과 경험으로도 이마치의 조각품이 세워진 것에 대해 조금은 자부를 하면서도 전국 일가분께 두루 홍보 못한 점과 마무리로서 일가분들이 모여 조촐하나마 “준공식”的 이름으로 자축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文圭)

敎育發展에

적극노력을

우리의 교육정책은 東洋哲學에 根本을 두고 外來 교육

과 같이 우리 인류를 指導하는데 있어서도 그 도리는 참

조각품 전면

—坡州廉氏의 溥源—

파주염씨는 삼한공신(三韓功臣)이고 대사도(大司徒)벼슬을 한 염형명(廉邢明)의 시조 이시고 관향은 파주(坡州) 단 일본이다.

고려국 개국공신인 휘(諱) 상(相)과 재상을 역임한 휘 현(顯) 봉성태사(峯城太師)까지 오르신 효문공(孝文公) 휘 신약(信若) 도첨의중찬(都僉議中贊)을 지내신 충정공(忠靖公) 휘 승익(承益) 그리고 좌우정승과 문하시중을 지내신 곡성부원군(曲城府院君) 충경공(忠敬公) 매현(梅軒) 휘 염제신(廉悌臣)은 중시조로 고려말엽에는 명문거족으로 염문의 위상을 높이셨다. (공민왕이 친히 그린 충경공의 초상화는 보물 1097호로 지정되어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충경공의 세 분 아드님 국파공(菊坡公) 휘 국보(國寶)는 서성군(瑞城君) 예문관(藝文館) 대제학(大提學), 동정공 휘 홍방(興邦)은 서성군 대사성(大司成) 예문관 대제학(大提學) 청강공(淸江公) 휘 정수(廷秀)도 사헌부(司憲府) 대사헌(大司憲) 우문관(右文館) 대제학으로 고려국에서 가문의 중흥을 이루하였다.



그러나 1392년 조선국이 개국하자 염문의 후손들은 충신 불사이군의 절의를 지켜 온둔 생활로 이어졌지만 임진왜란 때 창의(倡義)하여 공을 세운 휘 결(傑), 휘 서(瑞), 휘 홍립(弘立), 휘 말경(末卿), 휘 언상(彦祥) 장군은 원종공신(原從功臣)에 책록되었고 한말(韓末) 항일 투쟁에 몸바친 휘 온동(溫東) 열사도 우리 염문의 후손이며 한국 사실주의 문단에 찬란한 금자탑을 쌓은 횡보(橫步) 휘 상섭(想涉)도 우리의 자랑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선조님들의 역사적인 사실을 바로 알고 그 뜻을 후손들은 이어 살아가는 목표를 바르게 하고 의지를 굳게 하여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노력

을 다하자.
1999. 5. 29
(坡州廉氏大田宗親會)

조각품(후면)

제목 : 기원(祈願)

설명 : 상단의 원은 미래를 상징하는 태양이자 희망이며, 또한 시조 염형명(廉邢明)을 구심점으로 표현하였고 암석 안의 형상은 중시조 곡성부원군(曲城府院君) 충경공(忠敬公) 매현(梅軒) 염제신(廉悌臣)과 세 분 아드님(국파공, 동정공, 청강공)의 빛나는 업적과 후손들의 무궁한 번영, 미래에 대한 희망의 결정체이다.

작가 : 김희상
글씨 22세손 호택(浩澤)
(주관 파주염씨 한밭침목회)
(후원 파주염씨 대전종친회)

문화를 選別 接木하여 다가오는 21세기의 선진 교육문화의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西歐式 교육문화는 그 주안이 物質에 있고, 우리 교육문화의 근본은 倫理道德에 있기 때문이다. 무릇 人倫道德은 우리 人生에 없어서는 아니될 要素인 것이다.

교육은 多技多術이라 한 것

으로 許多할 것이다. 더욱이 物質萬能의 現代社會에 이르러서는 너무도 複雜多端한 視點에 逢着해 있다 하겠다. 물론 過去에 聖賢들이 心血을 傾注하여 後世에 끼친 교육적 가치는 우리 인류에게 참으로 至大하다 할 것이다.

우리가 만일 그대로 實行한다면 거기에相當한 效果를

거둘 것은 물론이려니와 그러나 그 중에서는 혹 어떠한 도리에 대하여 어떠한 주장을 세우고 어떠한 解說을 붙인 것에 불과해서 결局은 도리의 일부분을 提示할 뿐인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때 어느 곳을 물론하고 우리 인류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으니 이게 바로 윤리와 도덕에 관한 교육인 것이며, 또한 일 분일 초라도 떠날 수 없는 것이 윤리와 도덕을 근본으로 한 교육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윤리와 도덕에 관한 교육은 人道에 대한 참 교육의 總體인 것이다.

가령 일 예를 들어 우리 인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至當하고 또 至當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父母도 사랑하고 親舊도 사랑하고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도 사랑하고 禽獸도 草木도 사랑하고 怨讐도 사랑해서 秋毫도 分別과 緩急大小와 輕重이 없이 무분

별한 사랑을 主張한다면 결국 아비와 원수는 同一한 概念을 낳게 되어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은 亂倫과 또는 無秩序의 惡德으로 인하여 세상은 目不忍見의 혼륜과 濁亂으로 빠져들 것이다.

現下 國際情勢나 國內情勢 및 社會狀을 보라!

물질 만능으로 인한 힘의 論理가 좌우하는 世態속에서 蔓延하는 혼륜과 悖惡과 무질서를 보라. 이것이 우리 인류의 母體가 되는 인륜과 도덕의 교육정책이 아니요, 서구식 물질 爲主의 교육정책과 二重構造의 교육정책으로 인한 亂脈狀과 社會混亂을 加重 시키고 있는 것이다. 學生은 어디까지나 學院 교육이 아닌 학교 교육으로 하여 大學에 進學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스승은 제자를 사랑하고 제자는 스승을 존경하는 참 교육 風土가造成될 것이다.

그래서 가장 適當한 사랑을 提示하여 過不及이 없이 大中至正의 道理로써 行하게 하는 것이 즉 윤리와 도덕을 바탕으로 한 東洋式 교육이어야 한다. 그러한 연후에야 사람은 비로소 인류에게 도덕의 要件이 되는 것이며, 弟子는 스승을 尊敬하고 스승은 제자를 사랑하며 왕따도 不信도 사라지고 스승과 제자의 禮가 바로 서게 되는 것이며, 비로소 百年大計인 教育風土가 바로 잡혀 21세기의 先進教育 文明國家로서 우뚝 서서 전 세계의 교육풍토 造成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며 일보 더 나아가서 세계 평화와 인류 교육 운명에貢獻하게 될 것이다.

그런고로 우리 교육은 동양적 思想 위에서 윤리와 도덕을 바탕으로 한 人道的 교육 풍토 조성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필자는 거듭 強調하면서 이만 줄이고자 하는 바입니다.

염민섭

대중회 기금 관리사항

구 분	1998. 1. 5	1999. 2. 28
大宗會	한국투자신탁 56,691,977 수원농협 45,548,729 계 102,240,706 ※ 경상비 잔고 2,215,149 기금에서 전도 10,000,000 계 12,215,149	한투 64,288,701 +7,596,724 수농 51,907,386 +6,358,657 계 116,196,087 +13,955,381 (+13.6%) 경상비로 전도 5,000,000 잔고 111,196,087 ※ 경상비 잔고(2.28) 3,230,179 계 8,230,179
영천보전회	13,949,169	한투 15,818,357 +1,969,188 '98년 가을 향사에 550,000 '98년 향사 전도 600,000 잔고 14,668,357
강화보전회	3,574,004	한투 4,052,920 +478,916

유상과 유훈

한 번 잘못 들어간 길은 힘이 들더라도 뒤돌아와서 바른 길로 가야한다. 뒤돌아 오기란 힘이倍加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智慧와 勇氣가 必要하다. 잘못 들어간 길인 줄 알면서도 뒤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諦念해 버리거나 그 길이 바른 길인양 고집하며 더욱 잘못된 속으로 깊이 빠져 버리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歷史의 잘못된 기록들은 波及 효과가 크고 넓어서 大衆속에 심어진 內容은 修正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이러한 論理는 學問에서도 許多한例인데 어찌 家門의 歷史인 族譜라고例外일 수 있겠는가. 우리 門中의 옛 族譜들을 지금에 와서 보면 그 당시에는 그러한 文獻이 있었는데 왜 族譜를 편찬하면서 參考로 하지 않았을까 하며 안타까웠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理解가 되는 바 옛날에는 交通, 通信수단도 요즘 같지 않았고 타지방에서 쓰여진 文獻들이 널리普及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시골에서 선비들이 家門의 族譜를 편찬하려들 때

論, 大宗會에서 조차 해당하는 文獻들을 具備하지 못한 現實에서 宗人們의 이러한 欲求들은 해결하기가 어렵다.

너무 오래된 族譜는 접어두고 最近에 發行된 族譜에서 의문이 되는 內容을 거론하려 한다. 왜냐하면 우리 門中에서 1704년의 甲申譜를 시작으로 하여 그 동안 여러 번의 族譜가 發刊되었지만 그래도 여러 內容을 수록한 것으로는 1986년에 發刊된 丙寅譜가 最新의 것이고 또 內容도 多樣하기 때문이다. 먼저 말하지만 이 族譜를 편찬하신 분들의 잘못을 들어 紛彈, 詰責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

바라는 바가 있다면 필자가 提示하는 의문점에 同意하시면 사실을 보다 正確히 알기 위해 뜻을 모으고 거기에도 反論이 있으면 바른 決論을 얻기 위한 여러 方法의 노력 을 하며 그래도 解決되지 못할 課題라면 宿題로 라도 남겨 後世代로 하여금 진실을 밝혀내게 하고 싶을 뿐이다.

丙寅譜, 文獻錄 첫 머리에 있는 忠敬公遺像에 關한 理解

坡公께서 당시의 時運이 滅門의 危機에 直面한 것을豫知, 家族을 모아놓고 遺像은 어느 寺刹에 보관할 것임을 傳했단다. 傳說이란前提이기는 하지만 어떤 結論을 위한 말인 듯하다. 다음 항에서 戊辰之禍 이후 약 143년이 경과된 시기에 九世孫 譚寅 丹城公께서 1531년(中宗 26년 辛卯)에 進士試에 及第하시고 얼마가 지나서 지금의 경기 廣州지방 을 지날 때 비를 피하기 위해 들린 山間의 어느 암자에서 “유상”을 발견하고 많은 돈을 주고 모셔와서 羅州錦江祠에 奉安하고 春秋로 享祀했다 하였다. 너무나 우연이다.

羅州錦江祠가 그때 세워졌는지가 궁금하다. 文獻錄에서는 여기까지의 來歷은 “傳說”이 아니고 “事實”이라는 설명으로 전환된다. 內容의 줄거리는 앞의 傳說보다 더 傳說의 으로 느껴지는데 말이다.

다음에는 锦江祠에 모시고 약 30여년이 지난 壬辰倭亂 때 丹城公의 조카되시는 10世孫 譚喜 丹城公께서 유상을 모시고 피난하던 도중 務安 社倉에 이르렀을 때 수행하던 노비들과 公은 같은 내용의 꿈

못해 미련이 되고 이 기간 동안의 어느 時點들에서 全國의 宗人們은 약 100여년 前부터 遺像을 貴重히 여기고 描寫해서 各地域 祠宇인 羅州 錦江祠, 寶城의 清溪影堂 清道의 龜淵祠, 保寧의 水絃祠, 大德의 孝坪祠, 沃川의 龍江祠, 安義의 盤溪影堂(여기 유상에는 1897년 丁酉 11월에 司憲府 大司憲이던 德殷 宋秉璿의 畫像贊文이 쓰여져있다.)

載寧의 清水祠 端川의 松山祠 등에 奉安되었다. 이 遺像은 文化部長官에 의해 1991년 9월 30일부로 “傳恭愍王筆 廉悌臣像”으로 寶物 第1097號에 指定되었다.

600년이 넘는 그 오랜 歲月을 지탱한 탓도 있겠지만 遺像의 傳來 來歷이 傳說的 說話만으로 되어서 아직은 마음 한 구석에 남는 疑念을 말끔히 拂拭할 수 없다. 더 철저히 자료를 찾아合理的으로 來歷을 說明해서 유상의 評價에서 “이렇게 傳해진다”的 뜻인 “傳”자를 떼어서 우리도 더 愛着을 갖고 對하고 對外的으로도 당당한 궁지가 되게 해야겠다. 文化財委員도 忠告하기를 보관상태가 열악하니

라 했으니 保全에 힘써야 될 것이다.

다음은 遺訓에 關해서 살펴본다.

文獻錄에는 “坡州廉氏 先世 遺訓”의 제목으로 “忠孝爲節 敦睦爲業 虛榮不求 安貧自娛”的 16字를 景岩이 쓴 글로 싣고 있다. 家訓의 內容으로 不足함이 없는 뜻이라 보나 先祖분의 누가, 어떻게 傳했는지 알 수가 없다. 우리 門中 사람들이 이 遺訓의 來歷을 提示하지 못한다면 遺訓일 수 없고 한갓 볼 수 있는 金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가끔 일가분들 宅에 들리면 이 글귀를 表具해서 집에 걸어놓은 것을 보았고 또 어떤 가정에서는 學生들이 학교에서 숙제로 家訓을 써 오라기에 이 글귀를 써 보냈단다. 이분들은 族譜에서 이 글귀를 보고 家訓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애들에게 가르쳤다고 했다. 근거와 來歷을 모르는 글귀가 遺訓으로 전파된다면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속히 어떠한 定見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林內樵夫)

全國을 다 돌아볼 수는 없었을 것이니 어떤 내용은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하지 못하고傳說이나 口傳에 의존하거나 어느 경우에는 推測이라도 해서 앞과 뒤를連結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은 마음만 있으면 族譜 내용과 관계되는 歷史書나 文獻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또 他門中の 族譜에서 우리 門中과 관련된 내용을 비교 분석할 수도 있으니 옛 族譜의 내용에서 다른 文獻의 내용과 相異되는 점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사람에 의해 조속히 發見될수록 좋은 것이다. 그러나 多樣化된 近代生活의 여러立場에서 族譜 아닌 다른 文獻으로 先祖분들의 行蹟을 接할 수 있는機會는 많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契機로 해당되는 冊들을 보고 싶다는 意慾은 생겼으나 책읽기가 벌써 힘이 드는 老年, 學業에 전념하는 學徒, 生計를 위해 몰두하는 職場人 모두는 어떻게 冊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겠으며 시간을 마련해도 어떠한 文獻을 어디에서 구해 보아야 하는가.

지금은 各地域 宗親會는勿

定立이다. 忠敬公 神道碑文에 보면 “上愈重加輔國二字 封邑依舊 親形圖賜”(왕은 더욱 공을 重히 여겨 官職에다(功臣名) 輔國의 두 글자를 더하게 하고 친히 公의 초상화를 그려서 하사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神道碑文은 1704년의 甲申譜에도 있고 王命에 의해 지은 李穡의 牧隱集에 傳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1899년 6月에 神道碑를 重豎할 때에 잘 안보이는 상태에서도 내용을 확인하고 새로 세운 碑文에도 확인된 것을 보면 遺像이 하사된 사실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는 없다. 碑文에서 기준 功臣 이름에 “輔國” 두 자를 더한다고 했는데 왜 碑文의 첫 머리에는 忠誠守義同德論道 “輔理” 功臣으로 되어 있으니 “輔國”과 “輔理”는 같은 뜻일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다음은 文獻錄에 있는 “遺像奉安社蹟”的 내용이다. (49~503쪽)

이 글은 당시의 大同譜所에서 그동안의 자료를 토대로 쓴 것인데, 보다合理的인來歷을 쓸 수는 없었을까.

奉安內譯의 첫머리에는 菊

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遺像과 같은 形相의老人의 계시를 받고 그 啓示에 의해 行動함으로써 위기를 避했으며, 그 후 巍苔島에 건너가 8年間을 모셨다고 했다. 文獻錄의 說明은 앞의 소낙비로 비를 避하게 된 것과 노비와 같은 내용의 꿈에서 받은 啓示를 다 英靈이 비호한 기적이라고 하면서도 結句는 事實로 기록했다.

그 후 310여년이 지난 1910년경 18世孫 譚在蓮께서 錦江祠에 모셨던 遺像을 사유의 설명없이 寶城清溪影堂으로 옮겨 모셨고 1924년에는 아드님 되시는 20世孫 譚丁源께서 50여년을 私宅에서 모시다가 1981년에 廉氏 門中 代表者會議(지역 門中會로 추정)의 決議에 따라 22世孫 洪燮에게 인계되어 지금은 國立博物館에 보관중이다.

文獻錄에서의 來歷 說明은 결론으로 大同譜所의 이름으로 永久히 保全되기를 바란다며 文獻錄中的 다른 기사보다는 큰 活字로 강조하였다. 이 상의 內譯에서 保管場所와 保管責任者가 자주 變更되었는데 說明이 전혀合理的이지

保存에 필요한 환경을 유지하

—不事二君—

“忠”字를 字典에서 그 뜻을 찾아보면 署誠心이라고 했다. 또 “忠誠”이란 말의 풀이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으로 되어있다. 상고컨대 “忠”的 대상용어는 나라이다. 個人에게 忠誠을 다한다는 말은 잘 쓰여지지 않았다. 나라에 대한 忠誠心이라 할 때도 그나라는 君主國이었다고 생각된다. 하기야 요즘에도 “나라에 忠誠하고 父母에 孝道하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있기는 하다.

忠字에 臣字를 이어 “忠臣”이란 말도 歷史書에서 자주 본다. “臣”字는 일반 백성의 뜻이긴 하다. 臣民은 나라에서의 일반백성이지만 君主國에서의 백성이다. 백성도 民主國家에서는 國民 혹은 市民으로 社會主義國家에서는 人民, 大衆이란 말을 잘 쓴다. 또 民主國家에서는 忠臣이란 말 대신 愛國市民이라고 들한다. 史記의 田單傳에 보면 “忠臣不事二君”이라 하여 忠臣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고 했다. 내용을 더 새겨보면 의미는 복잡하다. 李成桂

를 君主로 섬긴 신하가 世祖을 섬겼다고 두 임금을 섬긴 것이 되지는 않는다. 恭愍王 때 벼슬을 한 牧隱이 李成桂를 섬겨 벼슬길에 있었다면 두 임금을 섬긴 것이 되고 당시의 倫理觀으로서는 義가 없는 사람으로만 지칭되는 것이 아니라, 부도덕한 사람으로까지 轉落되었을 것이다. 忠臣의 반대어는 逆臣이고 그 나라의 叛逆者가 되었던 것이다. 李灝의 星湖僕說은 廉興邦은 고려의 忠臣이고 李朝에는 逆臣이며 趙祚은 고려에는 逆臣이고 李朝에는 忠臣이다라는 뜻의 말을 했다.

이 말은 不事二君의 용어를 당시의 倫理觀으로 가장 적절히 표현한 말이다. 고려말까지 고려국에서 벼슬을 하고 고려국의 임금을 섬긴 그 많은 사람들이(특히 높은 벼슬을 한 사람들) 李成桂가 朝鮮國을 세웠을 때 높은 벼슬로 李朝를 섬긴 많은 人士(거명은 약한다)들은 당시의 철저했던 忠臣不事二君의 잣대로 평했어야 할텐데 왜 누구를 위해 말문을 잠궈버렸던가. 歷史書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

(다음면으로)

(전면에 이어)

고 고려에서 벼슬한 人士가 주동이 되어 이조에 와서 고려사를 편찬했을 때 특히 禤, 昌, 恭讓王을 비롯하여 忠臣들을 제거한 사실을 언급할 때 왜 그리 욕되게 표현하였을까. 그러한 歷史書를 쓰게 한 權力者, 쓴 學者의 良心은 지금의 學者들은 어떻게 評하는가. 또 이 책 내용을 믿고 후세에 가르쳤던 당시의 선비들 學者로서의 눈을 그리고 속 마음을 요즘의 倫理觀으로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 近世에 와서 또 헛갈리는 價值觀이 있다. 世祖때에 벼슬을 하 고도 가진 욕을 하며 죽은 死六臣은 李朝末까지 忠臣이었는데 요즘 或 學者들은 世祖의 再評價라며 世祖의 端宗에 서 물려받은 王位찬탈의 기록을 反倫理觀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死六臣은 지금도 忠臣일까. 歷史속의 史實이나 人物들의 評은 당시의 價值基準으로 보지 않고 民主社會인 現代의 視覺으로 표현을 한다면 옛날에는 義人이 愛國民이

거의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

歷史의 눈은 참으로 奧妙하고 難解하다. 하지만 요즘 한 정당의 이름으로 공인들이 國民에게 철석같이 약속해 놓고 약속을 어기고 정당의 進路를 바꾸는 일이 예사이고 한 정치인이 이 정당에서 저 정당으로 왔다갔다하는 것을 善良한 市民들은 눈물을 흘려야 하나, 박수를 쳐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 現代의 倫理觀으로도 現代人을 評價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졌다. 良心이 죽어서인가, 눈이 멀어서인가, 알고도 表現 못한다면 民主主義는 죽은 것이다. 하늘에 비노니 비록 말 못하는 사정이야 있을지라도 속 마음에는 바른 판단력과 사실을 직시하는 눈이야 꼭 살아서 과거를 바로 보아 배우고 익혀서 바른 미래를 위해 良識과 良心이 살아 숨쉬기 하소서.

(碧江)

忠孝를 세습하되 清貧으로 業을 삼는 것은 由來가 있어서이다)라는 글귀가 있다. 開窩公께서는 戊辰之禍로 家門全體가 危機에 處하자 벼슬을 버리고 숨어 인연을 끊고 採薇歌와 黃菊詩를 짓고 두문불출하다가一生을 마쳤다.

(이 부분 麗末忠義列傳 1994. 고려 崇義會 發刊 松隱公편에서)

우리 나라 名家門에서의 家訓內容을 概述하면 東州崔氏의 武愍公 崔瑩장군은 “見金如石”을 家訓으로 傳하고 星湖僊說을 쓴 李灝의 父親 驪州李氏의 梅山은 “千金勿傳”의 제목으로 10권의 冊으로 訓戒하였고 安東權氏 門中の 知足堂은 永嘉家訓으로 說明, 또 “常”은 南岡家狀으로 憲訓, 法으로 나누어 訓戒하였고 世宗大王은 孝子였던 全義李氏 李貞幹에게 손수 “家傳忠孝 世守仁敬”이라 써서 家訓으로 주었고 真寶李氏의 退溪先生은 言行錄을 通해 遺戒를 하고 또 後孫에게 十訓을 家訓으로 傳하고 恩津宋氏의 尤菴宋時烈은 20 德目을 說

生活의 禪

-알고도 傳하기 어려운 것들-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사람은 왜 사는가. 神은 있으며, 來世는 있는 것일까, 時間과 空間의 끝은 어디일까, 이러한 命題들은 그 많은 歲月이 흐르고도 사람들에게 그 비밀의 문을 열지 않았다. 이 보다 간단한 낱말 중에도 아무리 辭典을 뒤져봐도 알 수 없는 單語들이 많다. 神, 正, 有, 無, 사랑 등 낱말은 알 듯 하면서도 우리는 認識을 固定시키기 힘든 單語이다.

한편 우리는 알고 있고 쉽게 對話하면서도 상대에게 가르쳐 주고 또 실천시키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써도 사과 맛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실지로 現物을 먹여보지 않고는 사과 맛을 알게 할 수 없다. 경험하고도 그 진가를 알지 못하거나, 조금은 알았다고 해도 그 가치를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실천케 못 한다면 아는 것에도 깊이가 있다는 말이 된다. 어쩌면 알고도 실천 못하는 것은 한없는 욕망과 제한된 능력에서 오는 人間의 限界일까.

지금 나이든 우리가 세월에서 얻은 삶의 교훈을 어떻게 후손에게 전하여 줬었을 때 더 열심히 배워야 했다는 지금에 와서야 얻은 깨달음. 부모님 살아실 때 더 효도 못한 후회들 그들에게는 어찌 전할거나.

-母影居士-

로 일어날 것이니 마땅히 돈독하고 사랑하는 데 힘쓰고 和睦하고 恭敬하는 마음으로 만나고 정성껏 대접하고 장점으로 모아 短點을 보호하고 어두운 점을 밝혀주고 근심스러운 것을 도와주며 멀어지는 것을 가엾게 생각하고 어리석

(珦) 文成公은(우리廉門先代諱 守藏의 사위)은 學訓, 家訓, 宗規로 구분하여 後世에게 說明하며 家訓을 傳했는바 여기 그 “宗規” 中에서 “睦族”에서 說한 內容을 옮긴다.

「처음에는 한 사람 같은 몸이 남처럼 되었다는 말이 있

家訓(遺戒, 家規)

여러 경우와 難關을 극복하고 오랜 歲月이 지나一生이 마무리되는 時點에 서면 自身의 經驗에서 얻어진 教訓들을 사랑하는 자식, 손자에게 傳해주고 싶은 게 사람들의 常情일 것이다.

이러한 뜻으로 後孫들에게 傳해진 글귀를 우리는 家訓, 遺訓 혹은 遺戒라고 한다. 또 직접 傳해진 것은 아니어도 先祖분들이 日常 옆에 두고 보았던 座右銘이나 自省의 訓戒로 했던 글귀나 말을 後孫이 이어받아 傳해지는 글귀를 家範, 家憲, 家規 또는 自警文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어받은 家訓, 家範으로서의 글귀는 生活주변에서 흔히 接하는 教訓이나 格言과는 類를 다르게 하여 先祖분들이 직접 訓戒한다는 감정으로 貴重이 여기고 또 일상 言行에서 傳해진 家訓을 생각하며 行動하였다.

家訓이라고 다 이와 같은 效能이 있는 것은 아니다. 中途에 잊혀진 것도 있고 傳해지기는 했으나 活用되지 못하고 死文字化 되어버린 것도 많을 것이다. 반면에 價値觀이 非現實的이고 難解한 漢字

라 하여 內容이 쉽고 일상성이 있는 現代語로서 새로 家訓을 定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다.

여하간 家訓은 구성원이 理解되고 감동이 있어야 效能이 넓고 귀중히 발산되는 것이지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固定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家訓은 한 家門에 여러 內容이 傳해지기도 하고 한 가지만 統一되게 傳해지는 것도 있다. 또 家訓內容의 形式에서 格言 같이 간단한 成句나 旬節의 것도 있고 여러 德目을 들어 說明하는 文章으로 된 것도 있다.

坡州廉門의 옛 文獻에서 先祖분의 遺訓으로 傳해진 것은 四世祖이신 謐怡, “開窯公의 行蹟” 內容中 臨終之日 遺戒子孫曰 忠孝爲本 經學爲業 以保門戶 勿事科第 勿求官達 以遠禍辱 至今吾門 諸昆之世襲忠孝清寒爲業者有所由來矣.

(임종한 날 子孫에게 遺戒하여 이르기를 忠孝로 本을 삼고 경학으로 業을 삼아 門戶를 보전하고 科第를 일삼지 말 것이다. 官직에서 榮達을 구하지 말고 禍辱을 멀리하라. 지금 우리 門中の 弟兄들이

明하여 遺訓을 傳하고 漢陽趙氏의 靜菴 趙光祖는 사약을 받으면서도 忠孝를 성심으로 유언하였으며 德水李氏의 李珥 栗谷은 栗谷集에서 自警文으로 17 德目을 說明하며 遺戒했으며 高靈申氏의 申叔舟는 6 德目으로 羅州丁氏의 茶山 丁若鏞은 文集 家計편을 통해 여러 德目을 들어 說明하며 後孫에게 家訓으로 傳했다.

끝으로 順興安氏의 安裕

는데 이는 몹시 통탄할 말이다. 親族이 남처럼 되었다면 그것은 서로 잊어버릴 지경이 된 것이 아니겠는가. 선조의 입장에서 이를 본다면 다 같은 귀여운 손자인데 어찌 소원하게 대할 것인가. 갈래가 비록 다르더라도 풋줄이 서로 이어지고 사는 곳이 비록 멀어져 있더라도 소식이 서로 닿아서 일년에 한 번이라도 와서 한 뜰에 모이게 되면 효도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저절

은 것을 불쌍히 여기고 일가 친척을 平等하게 사랑하고 우리 先祖의 지극한 뜻을 받들도록 해서 옛날부터 우리 일가는 親族間에 和睦하다는 칭찬이 다시 오늘에 들리도록 힘 쓰고 또 힘 써라.」

일간에 친목하라는 訓戒가 얼마나 진지하고 자상이 表現되었는가. 깊히 새겨 볼 내용이라 옮긴다.

(相顯)

(大宗會 副會長)

— 나의 생각 —

타인의 생각 —

高麗國은 國教가 佛教였고 또 坡州廉門의 先祖분들은 거의 佛教의 獨실한 信奉者였다 고 본다. 國教가 佛教인 것을 확인하기 쉽다.

高麗 太祖편에 보면 王建이 죽기 직전인 癸卯 26年(서기 943년) 4월에 大臣 朴述希를 불러 이르기를 후손들이 감정과 욕심에 사로잡혀 나라의 질서를 문란시킬까 근심하면서 후손들에게 傳하여 아침, 저녁으로 펼쳐보아 영구히 모범으로 삼게 하라면서 10개 항목의 訓戒를 남겼는데 소위 訓要十條이다. 內容의 첫머리에 我國大業必資諸佛護衛之力(우리나라 王業은 반드시 모

든 부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이라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王建은 이 해 5월 丁酉日에 宰臣廉相 등에게 太子武와 상의해서 정사를 보라며

유언을 하고 丙午日에 죽는다.

우리 坡州廉門에서 佛教를 信奉했다는 근거로서 中始祖님의 祖父되시는 忠靖公 謹承益께서 王命에 의해 南溪院七層石塔(국보 100號)를 세우

셨다. 近年에 와서 이 石塔을 옮기기 될 때 그 基壇部에서 發見된 法華經 七冊의 말미에 王家와廉門一家를 위한 祝願文을 보아도 忠靖公께서 佛教를 信奉하셨고 또 忠靖公께서는 都僉議中贊의 宰相職에서

致仕하시고 물려나 곧 祝髮하시고 스님이 되신 記錄이 고려사에 있다.

中始祖님에 關한 기록으로는 禽王5年 乙未(1379년) 5月에 세워진 驪州神勒寺 普濟尊者 石鐘碑文(국보 357號)에 보면 檀越 첫 머리에 中始祖님의 謕가 明記되어 있고, 王師 懶翁스님이 中始祖님께 주신 詩句가 懶翁錄에 傳해진다.

다음 二世 先祖님에 關한 기록으로는,

神勒寺 大藏閣記(우왕 9년 癸亥)에는 優婆塞로 左使 廉興邦, 知申事 廉廷秀의 기록이 있고 安邊 安心寺, 指空, 懶翁舍利石鐘碑文(우왕 10년 甲子)에는 比丘尼 三韓國大夫

(다음면으로)

記憶의 江, 忘却의 들판

혹성의 3대운동 법칙을 발견한 17세기 독일의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는 늙은 나날에도 매일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된 책을 조금씩 읽는 습관을 가졌다. 어느날 그의 제자가 찾아와 “이제 힘에 겨우실 텐데 그렇게 애쓰시지 말고 편안한 하루하루를 즐기며 보내시지요.” 하고 권하자 “그건 모르는 소리지. 기억력이란 것은 항상 감시를 하고 단련시키지 않으면 나이와 함께 어느 틈에 달아나는지도 모르게 내게서 도망을 치고 말거든. 이젠 내가 늙었다고 이놈이 날 양볼 테니 더욱 감시와 단련을 게을리 말아야 한다니까.”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태어나면서 형성된 기억장치인 사람의 뇌세포는 청년기부터 소멸을 시작하여 하루에도 수없이 죽어간다. 죽어가는 뇌세포의 숫자만큼 사람의 기억력(記憶力)은 떨어지고

망각(忘却)의 늙으로 서서히 빠져드는 것을 두고 자연스런 일이니 별로 조바심 칠 일이 아니라고 안심시키는 것이 정신과 의사의 일과가 되고 말았다. 누구에게나 잊어서는 안될 일이 있고, 잊어버리는 것이 기억에 담아두는 것보다 훨씬 나을 일이 있다. 무엇을 망각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이냐는 선택과 결정은 사람마다, 얼마나 다르니 그 양과 질을 잘 도리는 없다. 사람이 즐겁고 행복하게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분기점을 그가 지난 기억과 망각의 조화 기준점이라고 해도 좋을 듯싶다.

의식과 정보의 내장(內藏)이 기억이고, 저장된 정보를 사람의 뇌세포가 일정량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는 포화상태에 이르면 뇌세포의 죽음과 함께 내장된 정보를 뇌에서 소멸시키는 현상을 망각이라 고 한다. 언어학자는 기억과

망각의 그물 속으로 들고 나는 정보를 통털어 기호(記號)라고 하고 이 기호를 전달하는 수단은 음성이나 문자 혹은 전자라고 했다. 기억용량이 정해진 머리 속을 다 채우고 넘쳐 망각의 공간인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정보 중에서 정말 간직했다가 요긴하게 전달해야만 할 필요한 정보가 거기에 뒤섞이는 수가 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면 망각증과 건망증이라고 부르면서 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홀리간 기호를 찾아 암감힘을 쓰기 시작하면 마음은 젊은데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 늙어 가는 것이구나하면서 탄식을 한다. 꼭 저장해 두어야겠다고 맘먹고 결코 잊어서는 안되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을 했는데도 영 생각이 안 나서 찔찔 매는 경우를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경험한다. 분명히 아는 얼굴을 만났는데 성만 기억이 나고 이름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아 머뭇거렸다가

은 것은 못들은 것으로 치고 기억장치 속으로 넣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뭐든 다 받아들여 들리는 모든 정보에 대해 아주 개방적이며 궁정적으로 수용하는 경우다. 자기의 기억장치 속에 외부의 청각기호는 모조리 입력시켜 내장한 경우가 그런 것이다. 이와는 정반대로 곁으로는 듣는 척하며 고개를 주억거려도 듣는 족족 다른 귀로 다 흘려보내고 머릿속에 하나도 입력시키지 않는 경우가 될 것이다. 못들은 것으로 치거나 귀가 먹어 들리지 않는다고 스스로 말하는 이에게 알려 주기도 한다. 임금의 자리를 물려주겠으니 받으라는 요(堯)임금의 제의를 듣고 더러운 소리라고 영천(潁川)의 물가에 나아가 귀를 씻고 기산(箕山)에 가서 숨었다는 허우(許由)의 정보청취 태도가 이런 종류의 극단적인 예라 하겠다. 요컨 데 음성으로 전달되는 기호의 수용태도라고 하겠다. 귀로

되돌아 들어가야만 했다. 아무리 예정했고 계획했던 일이라도 예사로 몇 가지는 빠뜨린 채 하루의 일상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기억장치 속에 입력해야 할 일들이 매일 늘어나고 있거나, 일상사가 점점 복잡해져 가는 환경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가자니 이런 일을 겪는 것을 예사로 여기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 바로 신경을 더더욱 과민하게 만들어 더 큰 혼란을 자초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내가 왜 이러지? 작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그저께도 이러지는 않았는데.....” 혹은 아내에게서 “당신 요즘 어디다 정신을 빠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전에 없던 일을 하구 야단이야. 몰래 숨겨놓은 사람 있는 것 아녜요?” 하면서 의혹을 받거나, 없는 사실도 바른대로 대라고 다그침을 받는 것도 예사가 되어버렸다. 기억해야 될 정보량이 무수한 기호의 홍수가

(전면에 이어)

人廉氏妙哲, 優婆塞(在家男信徒) 重大臣 廉興邦, 正順大夫廉廷秀의 기록이 있고 楊洲太古寺 圓澄國師塔碑文(우왕 11년 乙丑)에는 門徒로 三使左使, 廉興邦 지신사 廉廷秀의 기록이 있으니 高麗末까지 廉門에서는 당시의 國敎이던 佛敎를 信奉한 것이 확실하다. 사실이 이러한데, 1896년 10월 하순(永歷 250년 丙申)에 咸陽에 있는 景賢堂銘을 지은 月城 崔益鉉의 撰文中에는 忠敬公을 친양하는 글로서 麗室重經, 斥佛誅姦(고려왕실의 큰 인물로 불교를 배척하고 간신을 죽였으니)라는 句節이 있다. 麗末의 忠臣으로 國敎인 佛敎를 신봉하신 분에게 불교 배척 운운하였으니, 글을 지은 분의 잘못이거나, 內容이 對象者를 칭송하는 건지 辱하는 것 인지의 區別이 어렵다. 설마 學者인 勉菴先生이 남의 門中 慶賀의 銘文을 지으면서 辱이야 했을까 하며 全體文章의 뜻을 보아도 그 功績의 칭송에 틀림없으니 이 句節의 해석은 더욱 혼돈스럽다. 한侧面으로 理解하려 한다면 朝鮮國은 분명히 儒敎의 나라로서 先賢의 享祀로 儒林에서 주관하는 입장이 명예로이 평가했던 시기에 銘文이 쓰여졌으니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

까 싶다. 어찌되었건 잘못된 점이다. 그러나 이 論調가 佛敎信者였던 사람을 儒林에서 奉祀할 수 없다는 論理로 비약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全國各祠宇에 모시는 忠敬公을 비롯한 先祖분의 享祀가 잘못된 祭享이 아니기 때문이다. 直言한다면 佛敎信者를 儒敎信者를 비롯한 다른 宗敎의 信者들도 존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形式과 表현은 다를지라도 존경한다는 想念마저 拒否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닐까 殤國先烈에 對한 묵념에는 全國民이 고개 숙이는 마음과 같은 것이 아닌가 싶다. 때문에 門中祠宇의 享祀나 每年 한 번의 先祖분들 墓에서 올리는 歲一祭에서 나는 特定宗教이기 때문에 參詣할 수 없다는 고집은 편급된 것이니 指向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만일 宗敎가 다르고 풍속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일가간마저 어울릴 수 없거나 이 단시하고 등을 돌린다면 社會는 얼마나 殺伐해 지겠는가. 내 父母를 모시는 정성으로 남의 父母도 존경하고 내 主張이 다른 사람에 의해 존경받으려면 남의 主張도 존중해주는 것이 바른 社會를 이루는 도리가 아닐까 한다.

(碧江)

그와 헤어져 저만큼 보내고 난 다음 그의 뼈 벌어진 어깨를 바라보고 나서야 이름이 떠올랐지만 그는 불러도 들리지 않을 공간에서 휘적휘적 걸어가고 있는 경우를 겪어본 경우도 있을 것이다.

사람은 어느 시기가 지나면 자기가 한 일이나 말을 뉘우치는 경우도 허다하다. 실수를 범하는 것이 인간적이라는 말이 있을 만치 후회할 일을 쌓아가는 것이 사람의 삶이라고 말한 이도 있지 않았던가. 자기의 그런 말과 행위는 되도록 잊고 싶어한다. 잊고 싶다는 의지의 속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의 징표가 들어있기도 하다. 남이 내게 한 일이나 말은 그렇지 않다. 내가 두고두고 잊지 못하는 일 중에는 대체로 저쪽이 내게 저지른 실수나 비례(非禮)가 더 크게 자리잡고 남아 있는 것이 예사다.

나이 예순에 이르면 이순(耳順)이라고 한다. 귀에 들리는 음성을 쉽게 받아들이고, 귀로 전달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태연해야 된다는 나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영어로 말하자면 '청각의 개방(opening for hearing)' 쯤이라 할만 하다. 이 이순의 내면을 살펴보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듣고 싶은) 정보만 듣고 그렇지 않

들리는 정보에 대한 인식과 판별 이후에 일으키는 반응이 나이 예순에 이르면 그 이전과 같지 않다는 생리현상을 빌어 수용태도와 수용한 정보의 처리 패턴이 달라져야 한다는 뜻이 담긴 내용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 나이에 따른 뇌의 작동기능, 이를테면 기억량의 수용한계와 이를 초과했을 때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어떤 정보를 내칠 것인가 하는 인식과 판별이 달라져야한다는 계로(戒老)의 지침이자, 나이에 합당하게 반듯하고 원만한 처신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봄야한다.

착각(錯覺)이니, 도착(倒錯症)이니, 전망증(健忘症)이니 하는 것도 기억력이 쇠퇴하는 현상의 정도의 가감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본다면 나이에 따라 차례대로 찾아오는 증상은 아니라고 할만도 하다는 것이 의학적인 소견이고 보면 청각기능의 이상은 바로 기억의 혼란을 초래한다고 해두어도 무방한 정신현상이다. 아침 출근길에 나왔던 현관을 두 번 세 번 들락날락하고 난 다음에야 골목길을 나서는 회사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는 열쇠를 주머니에 넣지 않았거나 전차표나 지갑 혹은 수첩을 두고 나오거나 은행통장이나 도장을 빼뜨리고 출근길에 나섰기 때문에 집으로

(다음면으로)

변호사 廉元燮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3-23
승전빌딩 308호
전화 0331-217-2171
FAX 0331-217-9070

(전면에 이어)

과는 5-2+3=6이 되므로 1이 리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설명된다. 결국 한 가지가 덤으로 발생한 그의 일과는 생산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기억과 망각이 혼재(混在)하는 우리의 생활 패턴에서 망각의 기호의 양보다는 새로운 정보가 행위로 나타난 결실의 기호량이 더 불어났다면 굳이 망각 부문만 확대시켜 나무라고 있을 일도 아니지 않겠는가. 새로운 정보와 이를 실천에 옮기는 새 기호를 소중하게 여겨야만 한다. 그것이 정보의 흥수를 감당하면서 살아남는 묘법일 것이다.

정보전달의 매체가 음성과 문자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전자에 의존하여 시간과 공간의 한계와 벽을 아주 허물어버린 세상, 이른바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를 거부할 도리가 없어졌다. 아날로그 세상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컴퓨터의 존재의미가 무엇인가. 계산을 비롯한 모든 정보를 기호로 바꾸어 저장하는 정보창고가 아닌가. 라즈니쉬가 예언한대로 “기억은 생물적인 컴퓨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 라즈니쉬의 예언대로 되었고, 기억하는 능력은 기계에 맡겨버리자고 주장한 20세기초의 지식인의 외침이 그대로 실현되고 만 것이다. 1980년대에 10

년만에 이루어내던 일이 단 1-2년에 이루어지고 열흘이나 다르게 변환하는 사이버 문화권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기억의 들판에서 가꾸며 갈무리해야 하고, 무엇을 망각의 강에 흘려 보내버려야 할 것인가. 사이버환경이 해낼 수 없는 것은 머릿속의 기억장치가 아니면 구해낼 도리가 없다. 그것마저 디지털도 구에게 맡겨놓고 망각의 낯잠을 즐길 수는 없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잊어서는 안 될 일과 잊고 싶은 것 혹은 잊어서 좋은 일들은 사람사람의 가슴속에 오롯이 남아있다. 기억이란 저장고에 남아있어야 하는 기호는 제각기 다르다. 한 사람에게 기억되어야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기억이나 망각이나 그 어느 것이 되어도 무방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정보를 만들고 전달하고 또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오늘의 생존패턴은 숨을 쉬며 사는 이치와 다를 것이 없이 공통분모라고 해도 무엇을 컴퓨터에 기억해 주기를 의뢰하고 무엇은 자기의 머리와 가슴속에 간직할 것이냐는 선택과 결정은 개인이 해야 한다. 그것마저 전자기계에 맡기지는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大宗會 理事 基瑢)

邢明一位—可稱—漢—顯으로 하였는데, 이보다 약 47년후 (甲申) 우리 門中에서 처음 빌간된 族譜에는 顯—信若—希憲—純彥으로 上系를 기록하고 있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内容에는 이 책 内容이 더 접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이 책에서 祖妣(先祖분들의 室)님의 譜系에서 우리 先祖님과의 連結된 상황을 찾아본다.

“漢”的女 徐俊邦 ~ 利川 徐氏 譜系에서 俊邦은 爲坡州平常 徐氏之始云이라 하고 配位의 기록은 없다.

“守藏”에서 配位 知三司事 宜寧沈文濬女의 기록은 이 책에 宜寧沈氏 譜系가 없어 확인 못했으나 사위에 原州元氏 “傳” 文純公란에 配太子太傅 坡州廉守藏女 封峯城郡夫人으로 기록되고 또 順興安氏 “裕” 文成公란에 後室 礼賓卿 瑞原廉守藏女이었고 本宗기록에는 없으나 陽川許氏 “嵩” 良肅公란에 보면 室少傳 瑞原廉守藏女의 또 한 분의 사위가 있었다. 이 상의 기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守藏”님에 대한 기록은 他 門中の 譜系에서 확인되고 있다. (許嵩의子, 琮의 기록에 忠穆元년 (1345) 乙酉正月에 卒을 참고로 “守藏”的 生年은 1207년경 으로 추정되나 上, 下 연계는 알 수 없다.)

로 보아 공민왕 때의 실 人物임을 확인할 수 있다.

傍系 廉大有(공민왕시 人)란에 室 都僉議侍中 “鐸”的女 廉大有 密直副使 瑞原人하고 그 자손들을 연계하였고 사위들로서 羅州朴尙納(直長) 또 驪興 閔麟生(成均注簿)에도 父로서 瑞原人 廉大有를 기록한 것으로 傍系 宗人임을 확인할 수 있다.

中始祖님의 弟되시는 孝臣님(三司左尹)의 配되시는 陽川許氏의 許程(東州使)의 사위 室에 廉仲臣 宰臣 瑞原人으로 기록되어 있다. 동 譜系에 許程의 年代는 알 수 없으나 父되시는 許珙 文敬公의 年代를 보면 高宗癸巳生(1233)이고, 忠烈辛卯(1291)에 59세로 사망한 것으로 明記된 근거로 역산해 보면 許程(珙의 長男)은 1263년생, 그 따님 생년은 1293년경이 되어 僉臣中始祖보다 연세가 많으신 것을 짐작하게 되어 형수님으로 생각되고 또 이 年代에 瑞原廉氏로서 宰臣이라 할 수 있는 분은 僉臣 外 孝臣(仲臣)님으로 추정되나 고려사 권 76-2130 “三司”란에 보면 공민왕 11년에 다시 三司를 두어 左右尹은 각 2명 종3품으로 한다고 기록되었는데 종3품은 “宰臣”이라 했을까 하는 점이 의문이 된다.

다음은 中始祖님 이후에 기재된 内容을 이 책에서 살펴

東亭公 室에 室위에서 白川(혹은 平壤) 趙氏의 연계는 못 찾았으며 室 南陽洪氏는 “先室”로 清城韓氏란에는 清州韓氏 初室 無後 廉興邦 判書로 되고 우리 丙寅大同譜上에 기재되지 않은 분으로 咸悅南宮氏 父 敏廉興邦 左使로 되어 있었다.

이 책의 譜系에서 주목되는 것은 東亭公, 清江公 밑에는 사위들만 있고 아드님분은 언급이 없다. 東亭公 밑에는 사위분이 崔遲 護軍으로 더 있다.

다음 三世란에서 주목되는 점은 耕隱公室에 海平 尹邦晏女 後室無后라 하고 후속이 없고 또 邦晏女에 瑞原人 廉弘의 한 분이 더 있었다.

다음 四世란에서 謂가 願(願의 俗字) 字로 되어 丙寅譜에서의 “怡”字와 차이가 있고 配位에 永川皇甫氏, 父能長 都巡問使……로 丙寅譜에 기록되었는데 이 책에서 永川皇甫氏의 能長란에 보면 이 분은 고려 太祖때 金剛城 장군이라 해서 年代가 配位로 맞지 않고, 또 能長 밑에 후손으로 “琳”都巡問使, 辛禡시 唐申에 禮儀判書를 한 기록이 있으니 비록 이 책에서 皇甫氏 譜系에 “怡”님의 기록은 없으나 이 점 알아두어야 되겠다. 五世 “順良” 室에 보면 室郡事 晉州 柳榮門女 祖宰臣暉宗으로 기록되었다. 우리

‘氏族源流’의 내용

우리 先祖분들의 系代가 등재된 옛 文獻中에서 “氏族源流”를 보며 그 内容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内容과의 差異點 그리고 他門中 기록과 우리 門中 기록과의 連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책의 編著者는 豐壤 趙從耘(1607-1683)으로 號는 松窓이며, 宣祖 40年 丁未에 出生하여 肅宗 9年 癸亥에 別世(享年 77歲)하였다. 일찍이 安陰縣監을 지내고 世子 翊衛司의 翊贊(正6品)으로 그쳤으나 二男 賢輔가 同樞에 오른 推恩으로 參判에 追贈되었다. 畢生의 心力を 기울여 全7冊의 完成을 보았다. 壬辰亂후 全國土가 폐허화된 속에서 交通, 통신도 現代와 같지 않은 여건속에서 個人的 노력으로 全國에 있는 540여 門中의 譜系를 수집, 정리하였다는 것

은 경의로운 일이라 하겠다.

이 책에도 内容에서 오류는 있을 것이나 지금에도 여러 姓氏의 門中에서 系代와 관계 확인의 근거로 삼는 바가 많은 책으로 貴重한 유산이다.

이 책에 瑞原廉氏로 등재된 우리 門中의 系譜를 검토해 보면 간혹은 이해하기 어렵고 또는 지금의 觀點으로는 오류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으나 大體的으로 그 内容이肯定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이 쓰여진 해를 저자가 50세때로 본다면 1657년으로 太祖 건국후 약 265년인데, 瑞原廉氏란에 등재된 内容에서 貫鄉으로 城曲(曲城의 잘 못 표기인 듯) 原平, 峯城, 坡州로도 한다며 당시 수집된 바로는 “瑞原”的 單一 本貫만으로 등재되고 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우리 門中의 上系를

“承益”님 란에 보면 兄 守貞으로 하고 또 克髦 子 守貞으로 한 것은 고려사 권29-세가29-충열2 甲申10년(1284) 9月 己亥日 기사에 廉守貞以寵臣 承益之兄 驟得 少府尹 知制誥(수정은 농신 승의의兄임에 일찍 지제호로 승진)의 내용이 있어 확인된다.

“純彥” 기록은 확인할 수 없다.(上, 下 연결모두) 또 “承益”的 사위로 許嵩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陽川許氏의 許嵩란에는 守藏의 사위로 되어 있으니 모순된다.(守藏 사위가 옳은 듯)

이 책에서 瑞原廉氏 譜系에서 傍系로 되어있는 “廉元達”란에 配位 英陽南氏에서 南氏 譜系에도 “有孫”的 女廉元達 瑞原人 子廉之範(밀직사)으로 된 内容에서 “之範”은 고려사에도 권40-세가40-공민왕 3에 공민왕 13년 甲辰(1364) 11월과 1365년 3월에 之範을 “密直副使”로任命한 내용으

보자.

悌臣 중시조님의 配位에서 先室 完山 裴挺女無子 부분은 完山 裴氏의 譜系가 없어 연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後室 權漢功女 부분은 安東權氏 譜系에서 자세히 확인되며, 그 밑의 子, 子婦까지 명기되었으며 子, 廉古名衛 玄福君女에 廉國寶 判開城이란 기록을 보아 菊坡公께서 判開城직을 역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丙寅譜에는 配 文化柳氏라고만 기록되었는데 晋州柳氏가 맞는 듯 하다.

이상이 이 책 “氏族源流”에서 다른 姓氏의 譜系와 우리 譜系의 연계를 대조해보고 또 이 책 내용과 우리 丙寅譜(1986. 8. 25 發行) 내용을 대조해 본 내용이다. 앞으로 上系, 先代의 譜系를 再考하는데 參考가 되었으면 한다.

(林內 樵夫)

편집후기

1년에 한 번 그것도 會長님의 도움을 얻고서야 具像되는 宗報를 짜면서도 虛脫에 빠지는 것은 가을에 오는 외로움 만은 아닐게다.

욕망은 아직도 식지 않는데 자주 能力의 限界에 부닥칠 때마다 나이에 걸맞지 않게 발만 동동 구른다. 廣告는 물론 原稿도 모이지 않는데 궁금해서라도 宗報의 소식을 묻는 사람 없으니 어이할고나.

不德의 所致인 것을. 그러나 그래도 宗報는 숨을 쉬게 해야된다.

푸르름이 시들어 붉게 落葉 져가도 봄의 蘇生을 약속하듯이 가느다란 하지만 강한 한念願 모아 또 12號가 태어났다. 일가분들 아껴주시고 거들어 성원주셔서 門中의 窓이 되게 하소서.

敏變, 基瑢 두 분의 激勵 잊지 않을게요.

(碧江)